

창업교육서 시제품 제작까지 최대 7000만원 지원

'청년창업 사관학교' 조선대 창업지원단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대 창업지원단(단장 박종안·사진)은 유망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 공간제공에서부터 실질적인 창업교육 및 시제품 제작 등 창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012년 광주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조선대 창업지원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 유일 창업선도대학…작년 22개 기업 육성

올 예산 20억원 투입, 내달 8일까지 21곳 선정

창업지원단은 올해 총 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업자(21개) 발굴을 통한 10개월 이내 창업, 시제품 완성 및 매출과 고용창출까지 종합적인 창업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창업 (아이템)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올해 1월1일 이후 창업(개인·법인) 한 사람이나 단체이며, 사업계획 심층평가를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예비창업자는 오는 4월 8일까지 창업넷(<http://startbiz.changupnry.go.kr/jiwon>)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1단계)사업계획서 평가→(2단계)사전 교육·멘토링 평가→(3단계)발표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창업아이템의 실현 가능성·구체성·기술성과 함께 멘토링을 통해 창업가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창업지원단은 지난해에도 22명의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 10개월 동안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초기창업에 필요한 창업 공간 지원, 실질적인 창업 교육, 간담회 및

워크숍을 진행했고 예비기술자 간의 네트워킹 강화 및 다른 지역 선도대학의 예비기술창업자와의 교류를 통해 창업 열기를 이어갔다. 그 결과 22명의 예비창업자 모두 시제품을 완성, 창업에 성공했고 매출과 고용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적은 창업지원단이 선순환 창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학 내 총장 직속으로 창업전담부서를 구성하고 광주,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한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여개의 창업강좌,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실무능력 향상 지원을 하고 비즈롭고 활성화,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등 지역의 창업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창업친화적 학제 구축(창업장학금), 학생창업지원 프로그램(창업동아리 시제품 기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율·특화 프로그램'도 연중 제공하고 있다.

조선대 창업지원단은 지난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22개 기업을 육성했으며, 이 기업들은 100% 창업과

시제품 개발에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1년간 매출액도 약 18억 원에 달했다.

조선대 창업 지원단은 이를고 있는 박종안(정보통신공학과) 단장은 "조선대는 우수한 시설 설비 인프라와 인력 풀 그리고 기술 창업보육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면서 "창업분위기 확산과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사업화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단장은 이런 성과는 학교 층의 다양한 창업 인프라, 차별화된 창업 교육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광주·전남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공간 제공에서부터 시제품 필수 기자재 보유, 창업 교육 및 행정 지원, 마케팅 및 자금지원 등 창업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부문을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사업과 계획에 대해 박종안



단장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대학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총장을 필두로 대학본부의 9개 부처와 19개 단과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기관이 창업 지원을 위해 역할을 분담·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사업과 계획에 대해 박종안

단장은 "사관학교형 창업선도대학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창업지원단이 지난해 최초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창업 아이디어 발표' 대회의 한 장면.

2분기 광주지역 아파트 2300가구 분양 작년 동기 2배 늘어

오는 2분기 광주지역에는 23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지난해 같은 분기(1134가구)보다 2배 가량 많아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부동산 전문 사이트 부동산사랑방(homesrb.co.kr)이 광주 광역권 주거단지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에 5개 단지에 2298여 가구

가 공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다음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남구 효천2지구에 전용 면적 51㎡ 150가구, 59㎡ 382가구 등 총 532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입주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며 살다가 임대기간 종료 뒤 분양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결합한 형태의 북구 임동 미소래는 66㎡ 아파트 168가구와 82㎡ 오피스텔 28가

구가 내달 18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선착순 입대에 나선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상무에드가리움2는 서구 상촌동 운천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나주에는 대방건설이 대호2차 대방노블랜드 85㎡ 370가구를 4월 중 공급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 590회)

당첨 번호		2등보너스 수첨				
20	30	36	38	41	45	2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185,183,983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82,238,107		31		
3	5개 숫자 일치	1,860,863		1,370		
4	4개 숫자 일치	50,000		70,019		
5	3개 숫자 일치	5,000		1,221,113		

효성, 조현상 부사장 등기이사 선임



결로 끌났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없었다. 효성은 신임 사외이사로 최중경 전지식경 제부 장관을 선임했다. 또 이사 보수한도를 지난해 7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늘려 승인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SKT, 통신 장애 고객피해 10배 보상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 560만명에게, 피해 발생 금액의 10배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보상 방안 발표 및 대국민사과를 한 뒤 직접적으로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된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요금제 기준으로 4355원이 차감되는 셈이다.

또 택배기사와 휠체어 운전사 등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기업을 위해 서비스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담 고객 상담 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

현물시장 개장…광주 예탁결제원서도 거래

밀수나 함량 속이기, 바가지 걱정을 할 필요 없이 금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금 현물시장이 3주간의 모의시장 운영을 마치고 24일 정식 개장한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민도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에서 거래와 현물인출이 가능하게 됐다.

23일 한국거래소는 8개 증권사와 49개 금 실물사업자와 회원으로 가입해 금을 거래하며, 투자자들은 회원 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용 가능한 증권사는 대신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부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이다. 장을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장 개시 전인 오전 9시~10시와 종료시간인 오후 2시30분~3시에는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며, 장중에는 언제든 호가를 내고 거래를 맺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초기 안착을 위해 2015년 3월까지 1년여간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사 등을 통해 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대성기자 bigkig@

로켓전기, 기업 회생절차 신청

광주에 본사를 둔 로켓전기(주)가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로켓전기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켓전기는 최근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신규

사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애썼으나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추진한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마저 무산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23년 가발명가!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71억준이기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주제품 A/S 및 관리 환경 시술후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NEW soriQ

소리큐 보청기(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 S20, S22, S33

TV 시청할 때 **핸드폰 통화할 때**

강의들을 때 **대화 · 상담할 때**

찾아오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관2층**

구도청 일봉로 **전남대 병원** **화순**

남광주 농협 **500m** **구도청**

500m **구도청** **500m** **전남대병원**

소리큐보청기

소리큐 보청기 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